

O, T. and Han, Yeji (2023) Directions of English Education [영문교육의 방향성: 21세기 교육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탐구] in original language]. 1 ed. Seoul, Korea, Hankookmunhwasa [한국문화사 in original language]

Downloaded from: <https://ray.yorks.ac.uk/id/eprint/8704/>

The version presented here may differ from the published version or version of record. If you intend to cite from the work you are advised to consult the publisher's version:

Research at York St John (RaY) is an institutional repository. It supports the principles of open access by making the research outputs of the University available in digital form. Copyright of the items stored in RaY reside with the authors and/or other copyright owners. Users may access full text items free of charge, and may download a copy for private study or non-commercial research. For further reuse terms, see licence terms governing individual outputs. [Institutional Repositories Policy Statement](#)

RaY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York St John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RaY at
ray@yorks.ac.uk

들어가며

“나 이 과목 왜 공부해야 돼?” 요즘도 자녀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 학부모가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이 질문을 초중고를 다녔던 90년대와 대학을 다녔던 2000년대에도 끊임없이 하며 엄마와 나 자신을 괴롭혔다. 불행인가 다행인가, 영어 과목은 대부분 사람들이 공부의 당위성을 공감한다. 영어가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어쩌면 영어는 대학 입시가 종료된 후에도 학업이 이어지는 유일한 교과목일 수도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 진학 후에도 유학이나 취업, 승진 등 실제적 필요에 의해 영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왜 영어를 공부해야 하냐는 질문에 비교적 쉽게 답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영어의 도구적 목적에 매몰되어 큰 그림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위상과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는 타 교과나 타 외국어에 비해서 지나친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다. 그리고 지나치게 강조된 영어의 특수성은 영어를 잘한다는 것의 의미를 편협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영어는 교과 교육의 일부

넓게 보면 영어는 교과 교육의 일부이며 교과 교육은 학교 교육의 일부이다. 따라서 영어교육은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범교과적 학교 교육이 따르는 비전과 인간상, 교육 지향점과 부합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발표하며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교육 비전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다. 이는 현행교육과정이 강조하고 있는 공동체 가치 함양에서 더 나아간 것으

로 세계 교육 목표인 OECD 2030이 지향하는 바인 자신과 타인 및 지구촌 구성원 전체의 웰빙을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울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명명한 인재상인 창조경제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와도 대조적인 부분이다. 또한 범교과적 역량의 하나로 2015년 개정교육과정은 ‘의사소통’을 제시했으나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협력적 소통’을 제시하고 있다.¹

한국에서 영어교육과 관련된 담화를 살펴보면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4영역의 기능 향상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것 같다. 물론 실용 영어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과 교육의 하나로서 영어는 위에 언급한 개정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범교과적 교육의 지향점과 부합해야 한다. 교육과정개정을 위해 2021년 국가교육회의가 주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다. 국민 다수가 생각하는 교육 지향점 1위가 ‘개인과 사회 공동의 행복 추구(20.9%)’로 나타났고 2위, 3위가 각각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 주도적 학습(15.9%)’,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15.6%)’이다.² 교육에 있어서 국민들이 바라는 지점이 학습보다도 행복 추구에 있다는 것은 한국의 과도한 교육열 현상과 대조되는 놀라운 결과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 추구라는 대국민적 바람은 2020년 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학부모들이 바라는 학교의 역할 1위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것’(58.8%)으로 ‘좋은 고등학교나 대학을 진학하도록 돕는 것’(5.9%)에 훨씬 앞선 숫자이다. 학생

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교육부, 2021.11.24. 웹사이트.

2 "개정 교육과정 국민참여 설문 결과 발표 및 사회적 협의 시작," 교육부, 2021.6.22. 웹사이트.

들은 학교가 '자신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도록 돕는 곳'(37.8%), '행복한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곳'(32%) 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³ 또한 일반 국민, 학생, 학부모 집단 모두가 과반수 이상 '개별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해와 소통을 하는 교사'를 바라는 선생님 상으로 꼽았다. 교과목에 관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보다도 월등히 앞선 숫자이다.

이러한 통계 자료와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진다. 현재의 영어교육은 대국민적 바람과 교육 지향점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사교육에 드는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 소득 격차에 따른 사교육 참여 여부와 비용의 격차가 매우 크다. 이는 모두를 위한 교육,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과 웰빙이라는 목적과 아무래도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이다.

영어는 언어 교육의 일부

영어교육은 언어 교육의 한 축이고 다른 비영어 외국어 교육과 공동의 목적과 방향성을 공유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영어교육이 외국어 교육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비영어 언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행한 외국어 교육 표준을 살펴보는 것도 영어교육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데 유의미할 것이다.

미국 외국어 교육 위원회(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에서 발행한 범외국어 교육 표준(The World-Readiness Standards for Learning Languages)을 살펴보면 교육 목표를 5가지 영

3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국민이 원하는 교사는?...학생에 관심 쏟고 소통하는 교사." 정책브리핑. 2020.11.22. 웹사이트.

역(5C)으로 정하고 있다: 1) Communication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2) Culture 문화 이해와 역량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 3) Connection 학술적, 직업적 상황에서 언어 사용을 위해 타 교과 연계를 통한 지식 습득 및 다양한 관점 수용, 4) Comparison 문화적 역량을 겸비한 소통을 위해 자국 언어와 외국어 언어와 문화의 비교·이해, 5) Community 문화적 역량을 겸비한 소통을 통한 다국어 공동체 참여가 영역별 교육 목표이다.⁴

5C 교육목표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5가지 목표 중 하나인 반면 문화적 역량과 이해는 세부 목표에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을 생각해보면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영역의 의사소통 실력 향상은 교육 목표의 전체가 아닌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Council of Europe)에서 발행한 외국어 교육의 지표인 유럽 공통 언어 참조 기준(CEFR: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에도 잘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문서를 초급에서 고급까지 각 레벨에 해당하는 언어 기준을 제시한 외국어 평가 기준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평가를 포함한 외국어 교육 전반에 걸쳐 학습자가 배워야 할 것을 제시한 기초 문서에 가깝다. 유럽 공통 언어 참조 기준에서 전반적 언어 능력은 1) 일반적 역량(General competences), 2) 의사소통 역량(Communicative language competences), 3) 의사소통 활동(Communicative language activities), 4) 의사소통 전략(Communicative language strategies)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모든 의사소통의 경우와

⁴ *World-Readiness Standards for Learning Languages*. American Council on Teaching Foreign Languages. www.actfl.org/educator-resources/world-readiness-standards-for-learning-languages. Accessed 19 July 2023.

상황에서 언어적 능력 이외에도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적 경험, 사회 문화적 역량, 타인과의 관계성 같은 개인의 일반적 역량이 요구된다. 따라서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로 구성되는 언어 능력은 소통 활동과 전략의 극히 일부이며 복잡한 의사소통을 이해하기에 매우 한정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⁵

한국의 영어교육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표한 외국어 교육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한국의 영어교육은 한국의 실정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발, 발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외국어 교육 지침은 도구적인 의사소통 기능 향상에 매몰된 편협한 시야를 넓혀준다. 영어를 잘하는 것은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의 기능적 역량을 넘어서 거시적 관점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타인과 상호작용에서 필요한 처신과 문화적 민감성 등 광범위한 소통전략을 포함하는 것이다.

숲과 나무: 거시적, 미시적 관점에서의 영어교육

이 책에서는 숲과 나무를 관찰하듯이 거시적, 미시적 관점에서 한국의 영어교육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1장에서는 영어라는 언어가 파생되고 발달하는데 기여한 굵직한 역사적 사건과 사회 문화 현상을 짚어볼 것이다. 하나의 언어가 의사소통 도구적 기능을 넘어 역사와 사회라는 유의미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발달하는지 알아보고자 함이다. 2장에서는 대한민국 근 현대사와 맥락을 같이 한 영어교육 정책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국가적 영어교육 정책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

⁵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CEFR)*, Council of Europe, www.coe.int/en/web/common-european-framework-reference-languages Accessed 19 July 2023.

고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생을 영어 공교육에 몸 담았던 저자 Otree 선생의 중학생 시절부터 영어 교사, 교장 및 교육전문직 재직과 퇴직까지 삶의 에피소드와 생각들을 공유할 것이다. 한 개인의 영어 인생의 궤적을 따라 대한민국 영어교육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독자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시도가 되길 바란다. 3장에서는 조기 영어교육에 대해 학술적 근거와 국내외 사례들을 제시한다. 이 책의 두 저자는 조기 영어교육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관점을 포괄적으로 소개하여 독자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4장과 5장에서는 한국 및 다른 나라들의 공인영어시험의 지침, 교육과정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영어 이야기를 통해 거시적, 미시적 관점에서 한국 영어교육의 현주소를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이 책의 부저자가 외국에서 바라본 한국의 영어교육에 대한 단상을 담았다.

부저자 한예지